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 본격화 임실 여행 숙박비 할인 지원

총사업비 723억원 투입 2031년 준공 목표 추진

남원시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남원교도소는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 15만0,600㎡ 부지에 연면적 2만 1,185㎡, 수용자 500명, 상주직원 200명의 규모로 조성되며, 법무부는 총사업비 723억 원(정액 국비)을 투입해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남원교도소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기본·실시설계 각 270일)으로, 내년 말 설계가 완료되면 오는



남원교도소 신축 부지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가 마무리되는 2026년에 한국부동산원과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토지 기본조사 및 감정 평가를 거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020년 교정시설 후보지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교도소 유치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21년 6월 교도소 설립이 최종 확정됐고, 2021년 8월 법무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원교도소 신축사업 추진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및 지역 소비증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최영일 군수 “노인일자리 확대 공약 초과 달성, 안전한 활동 최우선”

순창시니어클럽이 지역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교육은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8일까지 순창군 내 각 읍·면 체육관 등에서 진행되며, 약 3,249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다.

순창시니어클럽(관장 이호이)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근무 중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수칙, 응급상황 대처법,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분석과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군은 노인일자리 3,38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81개에



서 2,099개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는 980개로, 전북 내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수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노인일자리 시니어자원순환단이 폐트먼트 59만 7천여개를 수거해 관련 수익금 약 331만 원을 전액 군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교육장을 방문한 최영일 군수는 “지

금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 소득 보전이 아닌 시간활용이 가능한 군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순창군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잘 활용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군은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동보조기기와 보행보조기 지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첫 시행된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지원되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순창=이왕림 기자

남원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 참여

남원시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7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긍정양육’이란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로 자녀를 인식하고,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을 담은 것으로 △나 돌아보기 △갈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실수 인정하기 등 9개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한 기관·단체는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063-635-1391)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아



동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여행 숙박비 할인 지원

임실방문의 해 맞아 '30% 할인 최대 5만원'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에게 숙박비를 할인 지원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실 여행 숙박비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임실군 외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실군 내 지정업소에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 결제액의 일부를 할인해 준다.

할인 혜택은 숙박비 결제 금액의 30%이며, 최대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관의 거주 관광객이 지정된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인 방법은 지정 숙박업소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숙박일 7일 전까지 사진 신청서를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임실방문의해TF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실군을 방문하여 관내 소재 식당, 유료 관광지 및 제품 결제 영수증과 숙박 당일 결제 영수증을 숙박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는 현재 11개소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대상업체 확인은 임실군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내용, 절차 및 지정 숙박업소 목록은 임실군 홈페이지·소통창·여·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군은 올해 임실방문의 해를 기념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의 자연경관으로 전국 각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는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에서는 4개의 대표 축제 기간에 입장료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한, 특별 투어 프로그램으로 도내 5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표 관광지 투어를 실시하고, 매력적인 야간 경관을 활용한 야경 투어, 방송작가 투어 등 특별한 이벤트도 운영한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관광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관광사업과 임실군의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여행수요 창출과 마케팅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식투어와 메가인플루언서 활용 투어, 임실 체험관광 상품 등을 동반 추진하여 관광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대표 소주인 ‘참이슬’을 통한 전국적 홍보도 전개 중이다.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 사진과 함께 2025 임실방문의 해 라벨이 붙은 하이트진로 참이슬이 출시되어, 유통 중이기도 하다.

심 민 군수는 “체류형 관광객들이 임실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 4D 홀덤 영상관 재운영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는 2층 천체투영관 리노베이션 사업을 완료하고 18일부터 4D 홀덤 영상관을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 10월 9일 개관 후 노후화된 천체투영관 시설물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과와 협업하여 진행했다.

리뉴얼 작업을 마친 천체투영관은 직경 10m 크기의 360도 홀덤스크린을 배경으로 사진 같은 4K급 영상과 모션 제어 시스템을 갖춘 4D홀덤영상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관광시설과(063-620-89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 박준기 관광시설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호남권 유일한 4K홀덤 4D시스템을 보유한 지역거점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관람객들은 영상 관람과 함께 실감있는 4D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의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가저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일 군수와 정명자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군정 주요 사업과 군민의 날 행사, 봄나들이 축제, 순창장류축제 등 지역 주요 행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해 여성단체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여성 권익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권익 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림 기자

임실군,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방지 예찰 활동 강화

임실군이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예찰단을 구성해 지난 17일부터 불법투기 예찰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예찰 활동은 최근 2년간 무단투기 발생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하천 인접수계와 무단투기가 용이한 산 비탈면까지 사전에 살필 계획이다.

군은 예찰 활동과 더불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고질적 민원 지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후처분보다 선제적 예방 활동을 중점 전개하여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예찰 활동 강화로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더욱 홍보해 무단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